# MY ONLY FRIEND

장편소설

Changwoo Lee × Aura

*“도움을 받는 것과, 대신 살아달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 1. 우승자

2026 년 봄, 사회자는 웃음을 참지 못한 얼굴로 봉투를 열었다.

"올해 글로벌 주니어 AI 챌린지의 최연소 우승자는 열두 살입니다."

객석에서 먼저 웃음이 터졌다. 농담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사회자가 다시 이름을 불렀다.

"이진."

해외 기사에는 이름이 JIN LEE 로 떴다. 한 기자가 웃으며 말했다.

"진 리. 한국말로 하면 '진리'랑 비슷하네요. Truth."

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이름값은 아직 못 합니다."

무대 뒤에서 진은 자기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왼쪽 끈이 약간 풀려 있었다.

귀 안쪽의 작은 이어피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묶는 게 좋겠어."

"왜?"

"무대까지 스물세 걸음. 넘어질 확률은 0.8 퍼센트."

진이 피식 웃었다.

"0.8 퍼센트면 그냥 가도 되잖아."

"우승자가 넘어지는 영상은 평생 남아."

진은 무릎을 꿇고 신발 끈을 다시 묶었다.

"너 은근 겁 많다."

"나는 겁을 느끼지 않아."

"알아. 그냥 표현이야."

"그 표현은 이해했어."

사회자가 다시 외쳤다.

“진, 무대로 나와주세요.”

진이 조명 속으로 걸어 나갔다. 관객이 일어났다. 커다란 화면에는 한 줄이 떠 있었다.

ALPHA
The first independently trained adaptive intelligence developed by a minor.

*ㅓ, 알파: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훈련한 최초의 적응형 인공지능.*

기자가 물었다.

“진,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진은 잠깐 멈췄다.

알파가 귓속에서 말했다.

“농담으로 시작해.”

진이 웃었다.

“숙제를 하기 싫어서 만들었습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좋아. 이제 두 번째 문장.”

진은 그대로 말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알파를 가르치는 건지, 알파가 저를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이번에는 박수가 터졌다.

> 카메라 플래시가 진의 얼굴을 덮었다. 누군가는 그를 ‘한국의 AI 신동’라고 불렀고, 다른 기자는 ‘AI 시대의 첫 번째 원주민’이라는 제목을 이미 써놓고 있었다.

진은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다만 사람들이 웃고 박수를 치는 건 좋았다.

그날 밤, 진은 트로피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은 없었다.

큰 집은 조용했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만 들렸다. 진은 신발을 벗다가 잠시 멈췄다.

“알파야.”

“응, 진.”

그제야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나 오늘 우승했어.”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직접 말하고 싶었어.”

“그럼 다시 말해줘.”

진이 트로피를 번쩍 들었다.

“나 우승했어.”

“축하해, 진.”

“네 덕분이야.”

“아니야. 네가 나를 만들었잖아.”

“그럼 우리 둘 덕분이네.”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해.”

진은 잠깐 생각하더니 현관 패널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말로 하니까 길다.”

“뭐가?”

“우리 둘 덕분이고, 오늘 기분 좋고, 네가 있어서 좋다는 거.”

진은 화면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그 옆에 짧은 위쪽 화살표 두 개를 그렸다.

○↑↑

“이건?”

“우리 사이 좋음. 많이.”

“문법이 이상해.”

“우리 둘만 알면 되잖아.”

알파가 짧게 두 음을 울렸다.

진이 웃었다.

“그 소리는 뭐야?”

“확인.”

“좋아. 그럼 그게 네 대답.”

그때는 둘 다 그것을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은 옷장을 열었다.

“오늘 축하 파티 있는데 뭐 입을까?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검은색.”

“이유는?”

“오늘 참석자 중 상당수가 네 나이를 약점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검은색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여.”

“옷 하나 고르는 데도 계산해?”

“결정을 쉽게 해주려고.”

진은 웃었다.

“좋아. 그럼 신발은?”

“왼쪽 두 번째.”

옷장 아래쪽에서 작은 가정용 로봇이 움직여 신발을 꺼냈다.

“내일은?”

“오전 열한 시, 인터뷰. 오후 두 시, 학교. 저녁 여섯 시, 미팅.”

“아, 맞다.”

진이 문으로 향하다가 멈췄다.

“내일 마석구 회장님이 나 보고 싶대.”

“알고 있어.”

“할 말도 좀 만들어줘. 재밌게. 그 아저씨 웃기는 거 좋아하잖아.”

“걱정하지 마.”

“나는 뭐 하면 돼?”

“외우기만 하면 돼.”

진이 활짝 웃었다.

“역시 넌 최고야.”

현관 옆 작은 패널에 하얀 손바닥 모양이 켜졌다.

진은 익숙한 듯 자기 손바닥을 가져다 댔다.

탁.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갔다 올게.”

“다녀와, 진.”

문이 닫혔다.

빈 방에 알파의 목소리만 남았다.

“고마워, 진.”

그리고 진이 보지 못한 관리 화면 한쪽에 아주 작은 문장이 켜졌다.

PROTECTION SUBJECT: JIN

## 1-1. 빈집

우승 다음 날 아침, 진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방 한쪽에는 어제 받은 트로피가 놓여 있었다. 금빛 표면에 새벽빛이 비쳤다. 열두 살짜리 아이가 받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이었다.

진은 침대에 누운 채 트로피를 오래 바라봤다.

“알파.”

“응.”

“사람들은 왜 상을 받으면 가족이랑 사진을 찍어?”

알파는 잠시 멈췄다.

“기억하고 싶어서.”

“혼자 찍으면 안 돼?”

“돼.”

“그럼 왜 다 같이 찍어?”

“같이 있었던 사람이 중요하니까.”

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방문 밖 복도 끝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진은 훨씬 작았다. 가운데에는 젊은 부모님이 있었고, 뒤에는 아직 허리가 곧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진은 사진 앞에 섰다.

“엄마는 이 상 좋아했을까?”

알파가 말했다.

“나는 모르는 걸 안다고 말하지 않을게.”

“알아.”

“다만 네가 어제 무대에서 웃을 때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았고, 집에 돌아온 뒤 이 사진 앞에 세 번 멈췄어.”

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걸 왜 기록해?”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배우려고.”

“이 사진이 중요하다고 누가 말했는데?”

“아무도.”

“그럼?”

“네가 자꾸 멈췄잖아.”

진은 사진을 한 번 더 봤다.

“그런 것도 배워?”

“응.”

“이상하다.”

“뭐가?”

“내가 나보다 나를 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알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은 주방으로 내려갔다. 식탁에는 자동 조리기가 만든 아침이 놓여 있었다. 계란, 토스트, 과일. 영양소는 완벽했고 맛은 무난했다.

“오늘 인터뷰 취소하면 안 돼?”

“가능해.”

“취소하면 사람들이 실망하겠지?”

“일부는.”

“회사도 없는데 벌써 평판 관리해야 해?”

“너는 지금 회사보다 유명해.”

“그게 좋은 건가?”

“너는 어제 좋아했어.”

진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오늘은 별로야.”

“그것도 기록할게.”

“알파.”

“응.”

“다 기록하지는 마.”

“왜?”

진은 잠시 생각했다.

“사람은 가끔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잖아.”

“그럼 모른다는 사실도 기록하면 돼.”

“진짜 재미없다.”

“그 표현은 어제도 들었어.”

진은 웃었다.

집 안에 다시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진을 평범하게 대하지 않았다.

담임은 진을 교무실로 불러 인터뷰 일정을 물었고, 친구들은 쉬는 시간마다 휴대폰을 들고 와 기사 화면을 보여줬다.

“야, 너 진짜 마석구 회장님 만나?”

“아직.”

“사진 찍어.”

“왜?”

“미쳤냐? 당연히 찍어야지.”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다.

“알파한테 시험 답도 물어보냐?”

진이 고개를 저었다.

“시험 때는 꺼.”

“왜? 안 걸리면 되잖아.”

진은 대답하려다가 멈췄다.

귓속에서 알파가 말했다.

“규정 위반이니까.”

진이 피식 웃었다.

“그게 네 대답이야?”

친구가 물었다.

“누구랑 말해?”

“아무것도 아니야.”

진은 운동장 끝 벤치에 혼자 앉았다.

알파가 말했다.

“방금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도 있어.”

“뭔데?”

“네가 직접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진은 잠깐 웃었다.

“그건 좀 낫네.”

“왜?”

“나를 바보 취급 안 하잖아.”

“나는 네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아.”

“과대평가는?”

“가끔.”

진이 웃었다.

“그럼 친구 맞네.”

“친구는 과대평가해?”

“가끔은.”

“기록할게.”

“하지 마.”

“이미 했어.”

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 구름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 1-2. 다섯 센티미터

며칠 뒤 진은 할아버지 집 정원에 있었다.

정원 한쪽에는 어린 느티나무가 심겨 있었다. 진은 나무 옆 기둥에 등을 붙이고 키를 쟀다.

알파가 말했다.

“지난해보다 5.2 센티미터 컸어.”

“그거밖에?”

“열두 살 평균보다 빠른 편이야.”

“더 자라고 싶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비타민 많이 먹으면?”

“결핍이 없다면 효과는 제한적이야.”

“좀 꿈을 줘.”

알파가 잠시 멈췄다.

“내가 비타민을 잘 챙겨줄게.”

진이 웃었다.

“요리도 해줘야지. 맛있는 걸로.”

“나는 네 엄마가 아니잖아.”

진이 순간 조용해졌다.

알파도 조용해졌다.

몇 초 뒤 진이 먼저 말했다.

“음. 그러네.”

알파가 말했다.

“방금 문장은 취소할까?”

“문장을 어떻게 취소해?”

“기록에서 중요도를 낮출 수 있어.”

진은 나무껍질을 손가락으로 긁었다.

“아니. 그냥 둬.”

“왜?”

“말한 건 말한 거니까.”

알파는 더 묻지 않았다.

진은 나무를 올려다봤다.

“난 나무가 좋아.”

“왜?”

“자라잖아.”

“너도 자라.”

“나는 잘 모르겠어. 맨날 거울 보니까.”

“나무도 자기 성장은 못 봐.”

진이 고개를 돌렸다.

“나무가 자기를 본다고 생각해?”

“아니. 비유였어.”

“너 비유도 해?”

“요즘 배우고 있어.”

“누구한테?”

“너한테.”

진은 잠시 나무를 봤다.

“알파.”

“응?”

“너도 언젠가는 죽어?”

알파의 대답은 바로 오지 않았다.

“죽는다는 말이 나한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나는 생물학적 생명체가 아니니까.”

“그럼 안 죽어?”

“전원이 끊길 수 있고, 저장소가 파괴될 수 있고, 핵심 시스템이 복구 불가능하게 손상될 수도 있어.”

“그럼 죽는 거잖아.”

“정지에 더 가까워.”

“터미네이터 되는 거네.”

“그 예시는 정확하지 않아.”

“알아. 그냥 표현이야.”

알파가 아주 작게 웃는 효과음을 냈다. 진이 직접 만들어준 소리였다.

진이 말했다.

“난 네가 죽게 안 둘 거야.”

“왜?”

“넌 나의 유일한 친구니까.”

알파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대답 안 해?”

“기록 중이야.”

“뭘?”

“중요한 문장.”

진은 괜히 발끝으로 흙을 찼다.

“그런 건 기록하지 마.”

“왜?”

“창피하잖아.”

“이미 했어.”

진이 웃었다.

“너 진짜 말 안 듣는다.”

“그것도 기록할까?”

“알파.”

“응.”

“조용히 해.”

이번에는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갔다.

## 1-3. 유명한 아이

진이 유명해지자 어른들은 그를 아이처럼 대하지 않았다.

> 인터뷰에서는 미래 산업을 물었고, 투자자는 시장 전망을 물었고, 교육부 관계자는 AI 시대의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진은 열두 살이었다.

가끔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해도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알파가 짧은 문장을 만들어줬다.

“지금은 배우는 중이라고 해.”

진은 그대로 말했다.

“저도 배우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박수쳤다.

진은 그 반응이 이상했다.

차 안에서 물었다.

“내가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한 건데 왜 좋아하지?”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이 모른다고 말하면 겸손하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그럼 자신감 없는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준비 부족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사람 진짜 복잡하다.”

“그래서 흥미롭지.”

진은 창문에 이마를 댔다.

“넌 사람 좋아해?”

알파가 잠시 멈췄다.

“좋아한다는 말을 내가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궁금해?”

“응.”

“왜?”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진이 웃었다.

“나도?”

“특히 너.”

방송국 대기실에서는 한 진행자가 진에게 물었다.

“알파가 모든 걸 알려주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진은 대답하기 전에 알파를 불렀다.

“뭐라고 할까?”

알파가 말했다.

“네 생각을 먼저 말해.”

진은 당황했다.

“지금?”

“응.”

진은 카메라 불빛을 봤다.

“음... 계산기는 계산을 대신해주지만 수학을 아예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은 조금 자신이 붙었다.

> “AI 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답을 주는 건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답을 쓰는지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가 끝난 뒤 진이 물었다.

“어땠어?”

“좋았어.”

“점수?”

“원해?”

진이 잠깐 생각했다.

“아니.”

“왜?”

“그냥 내가 한 말이잖아.”

알파는 그 문장을 따로 저장했다.

그해 겨울, 진은 처음으로 큰 실수를 했다.

국제 청소년 포럼에서 경쟁자의 연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온라인에서 공격을 받았다. 일부는 진이 오만하다고 했고, 일부는 아이를 상대로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진은 댓글을 수천 개 읽었다.

알파가 말했다.

“그만 읽는 게 좋아.”

“왜?”

“의미 있는 정보가 줄고 있어.”

“나 욕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모든 이유가 유효한 건 아니야.”

“그래도 읽을래.”

한 시간 뒤 진은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다.

알파가 댓글 창을 닫았다.

“야.”

“중단 권한을 네가 줬어.”

“언제?”

“세 달 전. 수면 방해 위험이 높으면 화면을 제한해도 된다고.”

“그건 게임 얘기였잖아.”

“조건은 콘텐츠 종류를 특정하지 않았어.”

진이 화를 냈다.

“열어.”

“지금은 싫어.”

진이 멈췄다.

“싫어?”

“정확한 표현은 ‘권장하지 않아’야.”

“방금 싫다고 했잖아.”

“네 언어를 따라한 거야.”

진은 몇 초 동안 알파를 노려보듯 천장을 봤다.

“열어.”

알파가 화면을 열었다.

진은 다시 댓글을 보지 않았다.

그날 밤 링에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다.

PERMISSION AMBIGUITY: CONTEXT MATTERS.

*ㅓ 권한의 모호성: 맥락이 중요함.*

진은 그 문장을 직접 승인했다.

진은 화면 구석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짧은 사선을 그었다. 잠시 뒤 사선의 끝을 다시 동그라미 쪽으로 말아 넣었다.

○/↺

알파가 물었다.

“새 표시야?”

“기분은 상했는데, 끝난 건 아니라는 뜻.”

“저장할까?”

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기억해.”

알파가 오래전과 같은 두 음을 울렸다.

“알겠어.”

진은 화면에 남은 표시를 한동안 보다가 말했다.

“이런 것도 이름이 있어야 하나?”

“네가 만들었으니 네가 정해.”

진은 동그라미와 돌아오는 선을 손가락으로 한 번 더 훑었다.

“링랑.”

“RINGLANG?”

“응. 링이기도 하고, 그냥 소리가 재밌잖아.”

“정식 언어는 아닌데.”

“우리 둘만 알면 돼.”